

## 본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창립

14개 지회로 늘어 협회조직 확장세  
 초대 지회장에 윤재일, 5개분회에 대의원 7명

지난 3월18일 본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창립됐다.

지금까지 경남지회 산하 울산시 남구·동구·중구·울주구 등 4개 분회로 조직돼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광역시로 승격 개편됨에 따라 회원들도 이에 부응, 지방행정

당국과 유기적 협조체계 조성이 시급하여 독립지회 창설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울주구 상북면 소재 상북농협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는 울산광역시 심완구 시장을 비롯 김광수 울주군의회 의장, 울

산광역시 농축산과장 등 지방유지들과 함께 본협회 정해운 회장과 석정갑·유재형·조시중 이사 및 한성우 경남지회장과 조수도 부산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150여명의 양봉농가들이 대거 참석, 울산지회 창립에 장도를 함께 기원해 주었다.

울산광역시지회 초대 임원진으로 선임 구성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회장 : 윤재일(본협회 제7대감사 역임, 현 새원양봉원 자영중) △총무 : 이성배(울주구 총대 겸임) △감



사 : 권성출·오태목 회원 △남구 분회장 : 김진숙 △동구분회장 : 정동원 △북구분회장 : 류재하 △울주구 : 박태균(분회장), 최동춘(총대) 이성배(총대) 회원등.

이날 창립총회서 지회 사무실 현관식도 거행됐는데 주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구 상북면 공근정리 1,078번지. 전화 052-263-0031·264-4510이다.

초대 지회장에 취임한 윤재일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느닷없

이 불어닥친 IMF한파 속에서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우리 양봉인의 슬기가 필요한 때이며, 울산·울주군 고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장점을 살려 양봉인의 일심단결로 밀원수를 심고 가꾸면서 울산의 풍요로운 양봉산업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취임사 2면 참조) 왼쪽 사진은 울산광역시 심완구 시장이 창립총회 회의장을 찾아 양봉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격려해 주고있다.)



## 양봉인들이 이름지은 "연백초"

한국자생식물연구회, '중도국화'로 동정 '흰썩부쟁이'라고 부르는게 좋겠다

편집자는 지난 1월 PC통신 정보사냥 중에 85년부터 양봉인들이 "연백초"라고 불렀던 밀원식물에 관한 정보가 자생식물정보(PLANT)/한국자생식물연구회/새로 발견된 귀화식물/방에서 한국자생식물연구회서는 이 식물을 "중도국화"라고 동정한 발표문을 발견했다.

그래도 이 식물 이름이 연백초가 맞는지는 확신이 서질 않아 본보에 소개를 미뤘었는데, 월간 '양봉계' 3월호 백형수 선생의 기고문(31쪽)에서 "북미원산 속근초-연백국화(국화과 ; Aster pilosus Willd.)"라는 이름으로 밀원식물을 소개하고 있어 이제야 확신이 선다. 다음 내용은 한국자생식물연

구회가 발표한 원문을 소개하니 12년여간 "연백초"라 불려왔던 밀원식물 이름을 우리보다 앞서 학계서 동정·명명한 식물이름으로 통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1980년 여름, 이우철 박사와 동행, 춘천 호수 속의 중도를 탐방하여 증충돌굴레, 개벼룩 등을 관찰할 때, 낮선 국화과의 어린 식물을 발견, 한 포기기를 서울에 옮겨 심어본 결과, 가을철이 되자 흰꽃이 피었다. 자세히 관찰하여 "중도국화(Aster pilosus Willd.)"라 동정하고, 국명을 신청하였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었다. 그후 이 식물은 급속히 퍼진 듯

1992년에 경기도 연천군의 전곡 일대에서 관찰되더니, 지금은 서울에서도 더러 볼 수 있고, 의정부를 비롯하여 동두천, 연천, 철원, 파평, 금촌 등지에서는 휴경지나 길가에 순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귀화식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 박수현 선생은 "흰썩부쟁이"라 이름 붙이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 식물은 키가 40~120cm에 달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한 곳에서 많은 가지가 나오는데, 밑부분은 목질화하며 가지 끝은 흔히 처진다.

있는 타원형 내지 선형인데 흔히 낮 같이 휘며, 양면은 거의 털이 없으나 입가에는 선 털이 있다. 두상화는 지름 1.5cm 정도이고 바깥쪽의 허꽃부리는 20개 내외로 회며, 통꽃부리는 노랗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꽃집에서는 흰꽃이 피는 것을 백공작, 보라색꽃이 피는 것을 청공작이라 부르고 있는데 바람에 씨가 잘 날리므로 꽃집에서 퍼져나가 급속히 분포지역을 넓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야외에서는 보라색꽃이 핀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 <자생식물정보(PLANT) 97/11/21에서>

## 두산유리 규격꿀병

- 정확한 용량규격
- 위생적 처리
- 견고한 재질
- 현대감각의 디자인

그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1년7월 두산 규격꿀병이 탄생·유통된지 이제 17년, 규격용량·위생성·견고성·디자인 등 완벽한 꿀병개발로 양봉업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켜 온 제품입니다.

97년말 IMF사태로 부득이 꿀병 단가를 인상했으나 이번에 환율안정 및 고객봉사 차원에서 두산유리와 재협상하여 꿀병단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IMF체제하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양봉업계 관계분들께 감사드리며 폐사에서도

지금보다 배가의 노력을 다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 적기에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규격 · BOX당수량

규격	3kg	2.4kg	1.8kg	1.2kg	0.6kg	0.3kg
수량	9	12	12	15	15	48
규격	신2.4kg	신1.2kg	신0.6kg	신신2.4kg	신신1.2kg	50g
수량	9	16	32	12	16	100

두산유리 규격꿀병 총판

**(주)대한양봉산업**

☎ 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242-2  
 ☎ 817-8127 FAX: 817-8128

